

복음 ; 약속하신 사랑의 이야기 ㄱ

1. 도입 ㄱ

1) 성경과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 신약의 1/4이 넘는 분량을 차지합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종합적인 성경이면서 독창적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과는 17%, 마가복음과는 43%를 공유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자료는 40%나 됩니다.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주로 누가복음의 중심부인 9:51-19:27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기도, 찬양과 기쁨, 성령, 성전, 제자도와 재물 사용, 원수사랑, 가난한 자의 복음 등 상당히 다양하며 이 복음서가 얼마나 폭넓은지를 보여줍니다.

2) 누가복음의 제목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이름은 다른 사복음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에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서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들이 '익명의 복음서'로 회람된 적은 없으며, 각각 마태의 복음서, 마가의 복음서, 그리고 누가의 복음서라고 불려왔습니다.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은 '누가에 따른 복음', '누가에 따른 거룩한 복음', '누가에 따른 복음의 시작', 혹은 짧게 '누가에 따른'이라는 책의 제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 누가복음의 배경

1) 누가는 누구인가? ㄱ

누가는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의 본문에 짧게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되고 있으며,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목록에 포함되었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잡혀 있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작물에서는 누가가 바울의 제자였고, 오랫동안 함께 여정을 했으며,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누가가 이러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베자의 파피루스 사본을 근거로, 사도행전 11장 28절의 안디옥 공동체에 누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는 신약에 기록된 가장 세련된 헬라어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으면서, 이 주장이 더욱 신빙성을 얻기도 합니다. 누가가 안디옥 공동체 사람이었다는 것과, 누가복음의 필체가 가장 세련된 헬라어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누가는 이방인 신자일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2) 저작 시기 ㄱ

누가복음의 저작 시기는 주후 62년경부터 60년대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년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는 사도바울의 전도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히는 것이 주후 62년이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의 순교 시점인 60년대 중반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기록되었을 마가복음의 배경을 근거로 하면, 60년대 말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저작 배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의 정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데오빌로는 다수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지칭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런 긴 책을 쓰는 일은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고, 따라서 후원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이를 ‘각하’라고 부를 만큼 정치적 지위가 높았을 후원자에게 헌정했을 것이라는 편이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데오빌로가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복음에 관심이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살펴 추론해 보아도, 데오빌로의 정체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의 정체를 밝히기 힘든 것과 별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더 넓은 범위의 청중들을 염두하고 기록되었습니다. 두 책의 후원자가 실존했는지 아니든지, 누가는 이 책들이 초대 그리스도인이 읽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장소도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교부들의 글에서 누가복음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긴 하지만, 너무 다양한 주장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기록되었기라고 설명하면서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로마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또 교부들이 기록한 주석에서는 아가야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종합적으로 오늘날의 학자들은 안디옥, 가이사랴, 에베소, 고린도, 로마 등으로 주장합니다. 다만 성경 곳곳에서 누가를 수리아 안디옥 지역과 큰 연결이 있을 것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복음도 그곳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4) 저작 목적

누가는 ‘각하가 배우신 일들에 관하여 확실한 것’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확증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바울은 배교한 유대인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믿음의 기원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대적에 맞서 기독교를 변호하며, 온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에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3. 누가복음의 특징

1) 장르

복음서의 장르는 고대 문헌에 나타난 일반적인 장르와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복음서의 장르를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까지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고 있어, 전기문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세세히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보다는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들과 구속 사역이라는 신앙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기적인 문학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서문에 보면, 기독교의 기원과 역사를 소개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행적을 세세히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역대기처럼 역사적인 사건들을 과거에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역사적 사건의 순서만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역사서라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앙고백서나, 신학 논문, 혹은 교리 문답서도 아니고, 서신이나, 시가서는 더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서는 기존의 문학적인 장르로 규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사역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성령의 특별한 간섭과 복음서 저자들의 독특한 성향이 유기적으로 기록된 장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문학 양식 덕택에 우리는 복음서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 신뢰할 만한 역사성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 신앙의 확실한 근거와 내용이 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내러티브

내러티브란, 정해진 시공간 안에서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공간 내에서 흘러가는 사건별로 다루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복음서의 본문을 특정 장과 절로만 끊어 이해하게 되면, 이야기의 시공간 속에서 드러난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내러티브가 진행되는 속도를 임의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독자가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 일어난 이야기가 단 몇 절로 압축이 되기도 하고, 몇 분 동안 일어난 일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절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 저자가 이야기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시켜 놓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곧바로 이야기에서 퇴장을 시킵니다. 이후에 간접적으로 세례요한의 죽음을 언급하지만, 일찍이 세례요한을 이야기의 초점에서 사라지게 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빈도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여덟 번이나 반복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됩니다.

3) 사복음서와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다보면, 반복되는 사건이 각 권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은 40%에 불과하며, 사복음서의 반복되는 부분은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 메시지의 풍요성과 다양성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의 시점에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 복음서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인자에 관한 진술이 26번이나 반복되고, 인자가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밝혀 말하고 있으며, 중보자로서 성령이 오실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신학적 주제

1) 약속의 성취 :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주권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도래와, 이제는 모든 곳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교회 설립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약속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본문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통전성에 더 강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가 예언의 성취입니다.(24:27)

누가복음 내러티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라는 주제가 널리 스며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2) 구원 :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 보다 구원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 ① ‘구원(소테리아)’은 누가복음에서 7번이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②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소테르)’라는 단어로 말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 ③ ‘구원하다(소조)’는 동사도 누가복음에서는 17번이 사용되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13번 마태복음에서는 14번 사용됩니다.
- ④ 예수님께서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에서도 누가는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번씩만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스라엘 내 소외된 자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했습니다.

- ① 마리아의 임신을 축하한 이방인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2:14, 32)
- ②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를 통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 ③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4:25-27)
- ④ 예수님은 병 낫기를 구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7:2-10)
- 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목표에 포함됨을 암시했습니다.(13:28-29)
- ⑥ 제자들은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졌습니다.(24:46-47)
- ⑦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9:52)
- ⑧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설명했습니다.(10:30-37)
- ⑨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 유일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17:15-19)
- ⑩ 여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략 15가지의 내러티브에서 주인공으로 등장)
- ⑪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4:18)

- ⑫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5:30, 7:34, 15:1-2, 19:7)
- ⑬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추방된 자였던 문둥병자와 사람들 치료하시고, 다 공동체로 복귀하게 하셨습니다.(5:12-13, 7:22, 17:11-19)
- ⑭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23:39-43)
- ⑮ 누가만이 외아들과 외동딸을 고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7:12, 8:42, 9:38)
- ⑯ 누가복음은 가난과 부를 대조하며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잔치에 초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삭개오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등)
- ⑰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비둘기 두 마리로 희생 제물을 드렸으며, 죽으실 때까지 남의 무덤이 묻히셨습니다.

3) 성령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더욱 두드러지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성령의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부모는 성령에 충만했으며(1:15, 41, 67),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2:25-27)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고(1:35), 성령의 권능을 입고(3:22, 4:1, 4:14, 4:18),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3:16) 또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셨고(11:13)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경고하셨으며(12:10),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하고(12:12) 부활한 후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24:49)

4) 예루살렘과 성전 : 배척과 구원의 무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여 이 성전에서 끝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은 완고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시며 우셨습니다.(19:41-44)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며, 이 구원의 메시지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뻗어나갔습니다.

5) 기도와 찬양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잉태한 이야기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기쁨, 희락, 찬미와 관련된 단어는 누가복음의 전체에 널리 퍼져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야기는 종종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의 찬미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5:25-26, 7:16, 13:13, 17:15, 18:43)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을 베푸시는 기쁜 시대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공표하며,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대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를 웃게 하러 왔으며(6:21), 그의 사역에는 천사의 기쁨이 뒤따랐고(2:13-14, 15:10), 회개를 통한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15:7, 19:6)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아홉 개나 기록되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두 개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3:21),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뒤에(5:16),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6:12),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9:18), 변형 때(9:28),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11:1),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베드로를 위해(22:32),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23:34),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23:46)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나누신 친밀한 사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 누가복음의 구조 

제 목	장 : 절
누가복음 서문	
수신자와 기록 목적	1:1 ~ 1:4
세례요한과 예수의 출생과 사명	
요한과 예수의 탄생에 대한 하늘의 선포	1:5 ~ 1:80
예수의 탄생과 소년 시절	2:1 ~ 2:52
세례요한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다	3:1 ~ 4:13
예수의 새 출애굽 사역과 가르침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다	4:14 ~ 5:11
예수 -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권위	5:12 ~ 6:11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고 가르치다	6:12 ~ 6:49
예수의 메시아 정체를 입증하는 표적들	7:1 ~ 7:35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가르침	7:36 ~ 8:56
제자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열두 제자를 위한 예수의 자기 계시	9:1 ~ 9:50
제자도와 선교	9:51 ~ 11:13
제자도와 충돌	11:14 ~ 11:54
제자도 : 결단과 분리	12:1 ~ 12:59
예루살렘에 대하여	13:1 ~ 13:35
넓고도 좁은 제자의 길	14:1 ~ 15:32
제물에 대한 가르침	16:1 ~ 16:31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	17:1 ~ 18:34
왕의 도착	18:35 ~ 19:44
예수의 예루살렘 사역	
성전에서의 가르침	19:45 ~ 21:4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오심	21:5 ~ 21:38
마지막 만찬과 감람산 기도	22:1 ~ 22:46
예수의 체포와 재판	22:47 ~ 23:25
예수의 죽음	23:26 ~ 23:56
예수의 부활	24:1 ~ 24:53